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on children's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최정화<sup>1</sup> 김정화<sup>2</sup>

Junghwa Choi<sup>1</sup> Jeongwha Kim<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on the happiness of infan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83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Jeollanam-do, South Korea.

**Results:** Firs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mother's general background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education and child's gender.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Third,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on children's happiness was significant, and in the sub-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righ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Conclusion/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is important in promoting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aise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based on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for mothers' awareness and practice of children's rights.

**key words** child rights, awareness of child rights, infant, and happiness.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1년 목포대학교 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목포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 <sup>2</sup>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jeongwhak@hanmail.net)

## I. 서론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 추구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OECD 27개국 아동에 비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

다(OECD, 2015).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수준은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결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의 현재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진이, 2018) 아동의 행복감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20). 이는 행복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유엔아동권리협약, 2006),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복 증진을 위하여 가정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과 비차별의 권리 보장을 보육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2021)

아동권리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 과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안사라, 2012; 이호균 등, 2014). 특히 유아기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며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남궁선혜, 김현정, 2011; 황옥경, 2012).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2006; 황옥경, 정연아, 송미령, 명준희, 2019).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유아를 부모에 의존해 살아가는 소유물 또는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거나, 유아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유아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아 스스로 의사를 존중하고 선택하여 적절한 삶과 교육을 결정할 능력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김정화, 2014; 김진숙, 서영숙, 2012; Wolfson, Lacks & Futterman, 1992).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부모는 자녀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경험하며 자율성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박찬옥, 안은정, 2008).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자율성을 허용하는 실정이다(황소영, 2017). 유아기 자녀가 기본으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감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실, 우리나라 어머니는 성장하는 동안 권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한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 없이 자신의 자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자리에서 있다(이배근, 2008). 따라서 아동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와 함께 누려야 하는지에 관한 부모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자녀의 권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이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는 자녀의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존엄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며(정진이, 2014),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과 실천 의지가 높아진다.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줌으로써 양육방식으로 나타나며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기준이 된다(이은주, 2010).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인식이 있다면 자녀는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감을 느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아기 자녀에게 행복감은 가족과 교사, 또래 등의 관계 속에서의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놀이 같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받는다. 유아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행복감은 낮아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행복감은 높아진다(황현주, 2012).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환경, 교육,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유아는 성장하는 동안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사랑을 느끼며 가장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의 행복감은 부모와 시간을 보낼 때,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높아지므로(문예은, 이주연, 2021) 유아의 행복감에는 부모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연화, 2007; 문민정, 2008; 이정미, 2007). 따라서 가정은 유아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어머니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방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복한 유아일수록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고(이하정, 탁정화, 2015; Huebner, 2004),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적응력도 높으며,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이은진, 2011)

행복은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가정은 아동의 권리 존중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권리실현이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자녀의 권리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도 함께 존중받는 것이므로(신지현, 김경화, 2005), 가정 내 유아의 권리가 존중된다면 유아 개인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김진숙, 서혜정, 2011).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토대로 가정 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고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이 어머니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동권리 교육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8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35세 이상-40세 미만이 49.6%, 40세 이상이 23.5%, 35세 미만 26.9%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상 48.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은 28.2%, 고등학교 졸업은 23.5%이었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어머니가 54.3%로 전업주부 45.7%보다 약간 더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4.6%, 여아는 45.4%였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 3세 36.0%, 만 5세 35.2% 만 4세 28.8%의 순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이재연과 강성희(1997)의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허은(2014)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0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생존권(10문항), 보호권(9문항), 발달권(11문항), 참여권(10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제시되어 있다. 본 척도의 총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3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생존권 .62, 보호권 .70, 발달권 .82, 참여권 .84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행복감의 측정도구

아동의 행복감은 이은주(2010)가 교사의 관점으로 개발한 유아행복척도를 정영선(2016)이 부모의 관점으로 수정한 척도에서 하위요인 중 교사 관계 요인은 부모가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부모 관계(3문

항), 또래 관계(4문항), 몰입(4문항), 영성(5문항), 정서(4문항), 건강(4문항), 생활 만족(2문항)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제시되어 있다. 본 척도의 총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1이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관계 .72, 또래관계 .80, 집중 .79, 표현 .77, 정서 .73, 건강 .89, 생활만족 .8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 도구에 문제 사항이 없고 어머니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집의 원장님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연구에 동의한 어머니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지 않게 답한 설문지를 제외한후 383부가 분석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이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와 Duncan 사후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4.66( $SD = .30$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보호권( $M = 4.73$ ,  $SD = .32$ ), 참여권( $M = 4.67$ ,  $SD = .37$ ), 다음으로 생존권( $M = 4.65$ ,  $SD = .28$ ), 발달권( $M = 4.60$ ,  $SD = .39$ )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동권리 중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의 행복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4.01( $SD = .45$ )이

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집중( $M=4.42, SD=.49$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M=4.36, SD=.58$ ), 생활만족( $M=4.30, SD=.60$ ), 부모관계( $M=4.09, SD=.59$ ), 또래관계( $M=3.95, SD=.60$ ), 표현( $M=3.88, SD=.62$ ), 정서( $M=3.68, SD=.61$ )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복감은 몰입과 건강, 만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자녀의 행복감의 기술통계 (N = 383)

구분		M	SD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	생존권	4.65	.28
	보호권	4.73	.32
	발달권	4.60	.39
	참여권	4.67	.37
	전체	4.66	.30
자녀의 행복감	부모관계	4.09	.59
	또래관계	3.95	.60
	집중	4.42	.49
	표현	3.88	.62
	정서	3.68	.61
	건강	4.36	.58
	생활만족	4.30	.60
	전체	4.01	.4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이 어머니의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어머니의 배경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차이 (N = 383)

구분	N	M	SD	F	Duncan
어머니 연령	35세미만	103	4.66	.33	.11
	25세이상40세미만	190	4.65	.30	
	40세이상	90	4.66	.29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졸업	90	4.64	.27	.24
	전문대학졸업	108	4.65	.34	
	대학교졸업 이상	185	4.67	.30	
가정소득	200만미만	14	4.63	.39	.14
	200만~300만미만	53	4.64	.38	
	300만~400만미만	112	4.66	.27	
	400만~500만미만	78	4.66	.25	
	500만이상	126	4.67	.32	

그러나 어머니의 배경에 따른 자녀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2.98, p < .001$ ). *Duncan* 사후분석 결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교졸업 이상 ( $M = 4.17, SD = .57$ )은 고등학교 졸업 ( $M = 3.93, SD = .57$ ) 보다 유아의 행복감이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 따른 유아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행복감은 하위요인 중 부모관계에서 부모의 학력이 대학교졸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보다 높았고( $F = 3.87, p < .05$ ), 건강은 전문대학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졸업 이상이 높았고( $F = 5.52, p < .01$ ), 생활만족도 전문대학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졸업 이상이 높았다( $F = 8.62, p < .001$ ). 그 외에 또래관계, 집중, 표현, 정서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차이 (N = 383)

	구분	N	M	SD	F	Duncan
부모관계	고등학교졸업a	90	4.05	.57	3.87*	a < b
	전문대학졸업ab	108	3.98	.62		
	대학교졸업 이상b	185	4.17	.57		
건강	고등학교졸업a	90	4.23	.56	5.52**	a < b
	전문대학졸업a	108	4.31	.56		
	대학교졸업 이상b	185	4.46	.57		
생활만족	고등학교졸업a	90	4.17	.61	8.62***	a < b
	전문대학졸업a	108	4.19	.58		
	대학교졸업 이상b	185	4.43	.58		
행복감전체	고등학교졸업a	90	3.93	.41	3.735***	a < b
	전문대학졸업ab	108	3.96	.42		
	대학교졸업 이상b	185	4.07	.46		
	전체	383	4.01	.44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행복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 = 2.61, p < .01$ ).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와 같다. 표 4를 보면, 자녀가 여아( $M = 4.07, SD = .43$ )인 경우가 남아( $M = 3.95, SD = .45$ )인 경우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 $t = 2.88, p < .01$ )와 표현에서도( $t = 4.01, p < .001$ ) 여아의 행복감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 차이

(N = 383)

구분		N	M	SD	t
또래관계	남아	209	3.87	.61	-2.88**
	여아	174	4.04	.57	
표현	남아	209	3.76	.64	-4.01***
	여아	174	4.01	.57	
행복감 전체	남아	209	3.95	.45	-2.61**
	여아	174	4.07	.43	

\*\*p < .01, \*\*\*p < .001.

## 2.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전체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6, p < .001$ ).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과 행복감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13에서 .93으로 나타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의 관계

(N = 383)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권리인식	1												
행복감	.36***	1											
생존권	.88***	.29***	1										
보호권	.84***	.31***	.70***	1									
발달권	.93***	.34***	.78***	.69***	1								
참여권	.91***	.35***	.72***	.69***	.82***	1							
부모관계	.29***	.66***	.20***	.27***	.25***	.30***	1						
또래관계	.24***	.70***	.20***	.20***	.21***	.24***	.44***	1					
집중	.37***	.51***	.30***	.31***	.34***	.37***	.49***	.32***	1				
표현	.29***	.78***	.26***	.26***	.26***	.27***	.41***	.46***	.40***	1			
정서	.20***	.76***	.13***	.19***	.18***	.20***	.41***	.48***	.36***	.57***	1		
건강	.30***	.72***	.26***	.24***	.29***	.29***	.46***	.37***	.35***	.47***	.53***	1	
생활만족	.27***	.64***	.24***	.24***	.25***	.24***	.51***	.40***	.41***	.34***	.43***	.59***	1

\*\*p < .01, \*\*\*p < .001.

1.권리인식전체, 2.행복감전체, 3.생존권, 4.보호권, 5.발달권, 6.참여권, 7.부모관계, 8.또래관계, 9.집중, 10.표현, 11.정서, 12.건강, 13.생활만족.



다음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6을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F = 15.05, p < .001$ ),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어머니가 아동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아동의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유아기 자녀의 참여권( $\beta = .22, p < .01$ )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 = 383)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상수)	1.71	.38		4.53***		
생존권	-.12	.13	-.14	-.16	.33	3.04
보호권	-0.22	.10	.12	1.57	.42	2.37
발달권	.14	.11	.12	1.22	.24	4.14
참여권	.22	.11	.18	2.05*	.29	3.51

$R^2 = .14, Adj. R^2 = .13, F = 15.05***$

\* $p < .05$ , \*\*\* $p < .001$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자녀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가 느끼는 부모관계의 행복감에는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0.87, p < .001$ ),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 중 보호권( $\beta = .31, p < .05$ ), 참여권( $\beta = .24,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며 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F = 6.38, p < .001$ ). 특히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 중 참여권( $\beta = .29,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며 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F = 16.35, p < .001$ ). 특히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 중 참여권( $\beta = .32,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표현, 정서, 건강, 생활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이 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N = 383)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sup>2</sup>	Adj. R <sup>2</sup>	F	
	B	SE	β					
(상수)	1.72	.51		3.37***				
부모관계	생존권	-.21	.18	-.09	-1.16	.10	.09	10.87***
	보호권	.31	.13	.17	2.29*			
	발달권	.01	.15	.00	.06			
	참여권	.38	.14	.24	2.71***			
(상수)	1.79	.52		3.38***				
또래관계	생존권	.05	.18	.02	.28	.06	.05	6.38***
	보호권	.10	.14	.05	.71			
	발달권	.00	.15	.00	.05			
	참여권	.29	.14	.18	1.99*			
(상수)	1.80	.41		4.37***				
집중	생존권	.02	.14	.01	.15	.14	.13	16.35***
	보호권	.12	.11	.08	1.09			
	발달권	.09	.12	.07	.76			
	참여권	.32	.11	.24	2.79**			

\*\*p < .05, \*p < .01,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과 그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연구의 결과, 아동권리 인식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모든 변인에서 아동권리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이은경, 2019)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에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하정, 2018; 오현정, 문혜련, 2020; 이수정, 2017; Jin & Ahn, 2019)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신지현, 김경화, 2004; 안사라, 2012; 우다정, 201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머니의 교육 경험이 어머니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자녀의 권리 존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서보순, 한민경, 2017). 그리고 연구결과를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보면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홍보 및 교육의 증가로 인해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

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보호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며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를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관계, 건강, 생활만족에서의 행복감이 높았다. 아동의 행복감이 어머니의 행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행복감을 주는 요인인 교육의 정도(최말옥, 2011)가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또래관계와 표현에서의 행복감이 남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여아의 행복감이 남아의 행복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김성범, 2012; 남현정, 2019; 송미숙, 2013; 이은주, 20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강영옥, 2009; 김도란, 김정원, 2008; 이혜인, 2015; 최유석, 임지영, 2021)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여아가 행복감을 느끼는 영역과 남아가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녀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행복감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이은경(2019)의 연구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고(안사라, 2012; 이은주, 정계숙, 2012),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은숙, 2020; 박소현, 2016; Furnham & Cheng, 2000)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은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다시 자녀의 행복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신념, 가치관과 행동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아동권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며 자녀를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지하고 격려하며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으로의 실천이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참여권이 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복감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관계에는 보호권과 참여권이, 또래관계에는 참여권이, 몰입에도 참여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아동권리 중 특히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녀를 보호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어머니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중에서 참여권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윤미리, 2020)와 교사-유아의 관계가 유아의 행복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주화, 2015), 유아들이 생활하는 기관의 교사와 맺는 친밀한 관계를 행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성숙(2013)의 연구를 보아도 참여권은 유아의 행복감과 지대한 관련이 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서 참여를 존중받는 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표현을 구체화하며 체계화할 수 있으며, 독립심을 기르고 자율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역량이 증진된다(김젤라, 이재연, 2007). 또한 아동의 참여권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정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경험하게 하는 가장 최초의 장소로써 보다 아동이 사회에서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즉, 어머니가 자녀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기본으로 보장하면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자녀들의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유아는 어린 시기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참여를 인정받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복추구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 증진은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하는 과정 동안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아동이 가진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권리를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면 아동의 행복감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기회가 많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권리 존중 실현을 위한 아동권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대상 지역 및 연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측정이 어머니의 질문지 응답으로 이루어져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유아 관찰 또는 면접의 방법을 통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유아기 자녀의 참여권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권리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도록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옥 (2009). 유아의 행복감과 행복개념에 대한 인식. **한영논총**, 13, 451-477.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성범 (2012). 가족의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doi:10.18023/kjece.2013.33.3.016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숙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친사회적 행동과 놀이만족도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이 (2018). 유아의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족환경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9, 53-77. doi:10.37918/kce.2018.03.109.53
- 김정화 (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343-364.
- 김젤나, 이재연 (200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아동과권리**, 11(2), 167-185.
- 김진숙, 서영숙 (201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 항목: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 권리 존중보육의 실행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133-162.
- 김진숙, 서혜정 (2011). 유아교실에서 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2), 51-79.
- 김하정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선희, 김현정 (2011). 유아인권 및 유아 인권교육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의 인식연구. **아동보육연구**, 7(2), 5-27.
- 남현정 (2019).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민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 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예은, 이주연 (202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85-104. doi:10.14698/jkcece. 2021.17.01.085
- 박소현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관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안은정 (2008). 3세 유아에게 적합한 자율성 교육 방향 모색. **아동과 권리**, 12(3), 331-360.
- 서보순, 한민경 (2017).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권리존중 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9(2), 21-45. doi:10.21075/kacs.2017.19.2.21
- 송미숙 (2013).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 행복감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현, 김경화 (2005). 어린이집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보육학회지**, 5(1), 123-140.
- 아동복지법 (2020.12).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 안사라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유아보육법 (2021.8).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에서 2021년 10월 3일 인출
- 오현정, 문혜련 (2020).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유형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3), 7-28. doi:10.22590/ecec.2020.24.3.7
- 우다정 (2016). 어머니의 영아권리인식과 실천수준 및 부모역할지능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
- 윤미리 (2020).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전문성인식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 (2008. 6).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2008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 서울.
- 이수정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권리인식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정계숙 (2012).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생애학회지**, 2(2), 33-50.
- 이은진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1), 65-83.
- 이정미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및 안념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화 (2015). 유아의 행복감에 부모 양육태도, 교사-유아관계 및 또래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균, 고유희, 김철홍, 장화정, 전미선, 조인섭, 황옥경 (2014).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

- 리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8(3). 387-409.
- 이하정, 탁정화 (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11(4), 39-61. doi:10.14698/kjccce.2015.11.4.039
- 이혜인 (2015). 가족체계환경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선 (2016).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과 부모 만족 및 유아의 행복감.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이 (2014). 보육교사의 인권인식 및 민감성과 영유아 학대 인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말옥 (2011).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27(2), 19-40.
- 최유석, 임지영 (2021).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능력 및 행복감간의 구조적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1), 71-82. doi:10.6115/fer.2.21.006
- 황소영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아동관과 아동권리존중 양육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옥경 (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27-49.
- 황옥경, 정연아, 송미령, 명준희 (2019).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6). 1-19. doi:10.14698/jkccce.2019.15.02.001
- 황현주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1(2). 135-152.
- 허은 (2014). 아버지의 아동권리 인식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10), 463-470. doi:10.1007/s001270050265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3-33. doi:10.1023/B:SOCI.0000007497.57754.e3
- Jin, B. K., & Ahn H. Y.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late school-aged children: A focus on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3), 245-254. doi:10.4094/chnr.2019.25.3.245
- OECD (2015). *How's Life?: Measuring Well-Bing*. Retrieved May 21, 2021, from <https://www.oecd.org/statistics/how-s- life-23089679.htm>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Retrieved October 1, 2020 from <http://tbinternet.ohchr.org>

Wolfson, A., Lacks, P. & Futterman, A. (1992). Effects of parent training on infant sleeping, patterns, parents' stress, and perceived parental compet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 60(1), 41-48. doi:10.1037/0022-006X.60.1.41

논문투고: 21.06.14

수정원고접수: 21.11.23

최종게재결정: 21.12.15